

설탕 섭취 감소 위한 각국의 자구책

파리지사

음료회사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

- 전 세계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유럽,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설탕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속속 도입되고 있으며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도 있다. 설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을 시장경제의 폐해로 여기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기업에 부과해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청소년 비만감소 위해 설탕세 도입한 영국

- 영국 정부는 2018년 4월 6일부터 청소년 비만감소를 위해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탄산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소다세'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을 통해 탄산음료 100ml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1L당 18펜스(약 300원)의 세금이 붙고 있어, 설탕함유량에 비례해 가격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 탄산음료의 대명사인 콜라의 경우 1.5ml당 약 1.25파운드에서 1.49파운드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70g 소형패키지의 콜라 한캔을 8배나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므로 과다한 설탕함유 탄산음료의 구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
- 영국 정부에서는 설탕세 도입 후 10년간 비만인구가 370만 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으로 확보될 8700억 원 가량의 예상수입으로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청소년 비만 감소를 위한 효율적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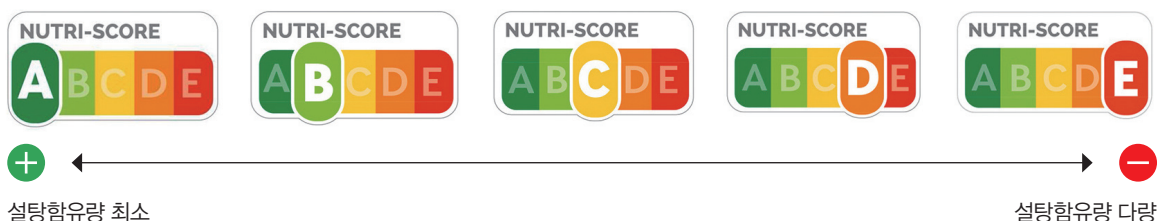
벌금제로 설탕함유량 제재하는 아일랜드

- 아일랜드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설탕함유량에 따라 차등적 세금이 부과된다는 방식에서 영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해 설탕이 첨가된 무알콜음료와 일반음료, 과일주스에 폭넓게 적용되며 100ml당 8g이상의 설탕이 함유될 경우에는 1L당 30센트(약 380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아일랜드 음료위원회 (IBC, Irish Beverage Council)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설탕함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건강영양평가를 자체 실시해 이를 언론에 제시하면서 정부의 설탕세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Nutri-Score'로 식품품질 신호등을 장착한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2017년 3월부터, 'Nutri-Score'라 부르는 식품품질분류 라벨링을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식품 영양점수를 매기고 이를 색깔별로 표시해 제품 패키지에 인쇄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 유통중인 제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을 평가해 건강에 유익한 정도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5가지 배경색을 적용해 프랑스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 17%에 달하는 비만인구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자구책은 다양한 기업들의 동참으로 점차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식음료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설탕함유량을 줄여나가게 되면서 빨간색(E등급)에서 주황색(D등급)으로 식품등급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식음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뉴트리 스코어(Nutri-score)



음료의 설탕 함유량 기준

- | | |
|------------------------------------|------------------------------|
| A Mineral water(Dark Green) | D 6~9g(Orange) |
| B Min~1g(Light Green) | E 10~Max(Dark orange) |
| C 2~5g(Light Orange) | |



Nutri-Score 로고가 부착된 상품

건강한 설탕대체식품과 라벨링 제도 준비

- 급등하고 있는 자국의 설탕함유음료 가격 때문에, 온라인 상점과 국경상점을 통해 이웃나라의 탄산음료를 수입하는 비율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소한 즐거움을 빼앗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하지만 건강을 지향하는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설탕세가 국가예산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건강한 제품개발을 위해 기업들의 혁신까지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설탕세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들 역시 설탕대체 감미료나 무설탕·저설탕 음료개발에 좀더 집중하고 건강관련 라벨링에 대한 자발적인 준비를 통해 유럽 식음료시장의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inews.co.uk, 이탈리아 신문 일간지(www.ilfattoalimentare.it)
 www.thesun.co.uk
 프랑스 BFM TV(2017. 10. 31)
 www.mangerbouger.fr